

사 “협약서 요구 전면 철회 요청” 노 “교섭해태로 간주”



5월 8일(목) 긴 연휴로 2주 만에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는 10개 사 19명, 조합은 11개 사업장 51명이 참가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검토한 사용자가 요구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날이었다.

질의 아닌 입장 표명, 큰 싸움 예고

디와이피(동양피스톤) 공충국 상무는 “충실하게 질문하고 성실하게 논의하겠다”고 짧게 인사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오늘은 박창수 열사 추모제가 있다. 독재의 탄압은 옛일일 줄 알았는데 과거의 망령과 싸우는 듯한 요즘”이라며 노사가 사회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이어 “보내주신 질의서가 질문이라기보다 ‘수용 불가’ 입장 표명이라 유감이다. 올해 큰 투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 임금 인상 여력 없다

사측은 경제성장을 전망, 미국발 관세 압력,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지불여력이 가능한 회사가 없다’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물었다.

엄미야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은 없던 새 임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다. 오히려 임금인상 요구는 예년보다 낮다”고 답했다.

서명관 계양전기 지회장은 “역으로 각 사는 법이 판결한 통상임금 문제를 충실하게 협의하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해보자’고 했어야 할 일을 ‘지불여력이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임금체계는 오랫동안 노사가 함께 결정해 온 시스템인데 룰 바뀌었다고 사용자 일방 부담은 지불능력 부분에서 억울함이 있다”고 항변했다.

화재발생대비 요구는 별도의 질의 없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사, 집단교섭 협약서 요구 전면 철회 요청

상당한 논란이 된 것은 사측이 ‘지부 집단교섭 협약서 정리’ 요구에 대해 질의가 아니라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다.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3차 교섭, 질의응답에



서 ‘철회’ 요구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교섭을 안 하겠다는 말인가?” 물었다.

사측은 “소통과정이 미흡해 과도한 용어를 쓴 것은 사과한다. 하지만 수용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집단교섭의 기 합의사항 84개 조를 검토했고 수용불가의 근거를 정리했으니 차기 교섭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교섭 해태 의지는 아니라고 수차례 말했다.

질의응답? 쟁점뚜렷!

거꾸로 가는 교섭

요구안을 검토해보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불가



능하다면 수용불가 입장을 내겠지만, 먼저 노동조합의 요구를 ‘철회해달라’한 다음 원만하고 성실하게 교섭하겠다는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이런 사측의 태도에 교섭위원들은 “교섭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질문지를 수정하는 등 과정을 바로잡고자 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집단교섭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격차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당장 수정하기 어렵고 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이규선 지부장은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다”며 원만한 교섭을 위해 예정대로 사측이 안을 마련해 차기 교섭을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사측은 “철회라는 말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상호 충분히 의견을 듣고 물꼬를 트는 논의였던 것 같다.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하게 됐다”며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규선 지부장은 “질의응답 날인데 올해 교섭의 쟁점이 뚜렷하게 부각된 것 같다. 임금, 통상임금, 협약서 등. 철회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협약으로 정리하겠다.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차기에 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22 4차 교섭

차기 교섭은 5월 22일(목) 14시 말레동현화성지회에서 진행한다. 15일(목)은 사용자 워크숍으로 한 주 쉬어간다. 22일에는 **전체 교섭단 모임**을 진행, **트럼프 발 관세전쟁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 박창수 열사 추모제

34년을 이은 사회개혁의 목소리

교섭을 마친 후 교섭위원들은 저녁 6시 안양역에서 열린 박창수 열사 추모제에 참석했다. 집단교섭 사업장 외에도 지부 여러 사업장이 함께했다.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지키려던 열사를 기리고 34년이 지난 오늘을 돌아보며 우리의 과제를 되새겼다.

